‘8末 9初’ 야권 신당 윤곽 드러난다

메르스 여파 잠시 주춤했던 준비작업 다시 속도
박준영 “신민당 창당” 천정배 “구체계획 밝히겠다”
현역의원 합류가 관건…주류 “찻잔 속 태풍 그칠 것”

야권에 신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메르스사태 등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8월 중순이 되면서 ‘신당파’들이 이달 말로 시간표를 맞추고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단결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현역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신당파 합류가 이어지는 등 원심력은 계속 강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발표시기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이 각각 추진하는 신당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가 8월말~9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시기가 1차 고비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 전 지사는 “8월말 창당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신민당’을 당명으로 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시기나 당명에 대해 최종 결심이 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 등 야권 인사들을 만나며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남희 경북 영천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현역 지역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탈당, 함께 탈당한 12명의 당원과 함께 ‘박준영 신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당이 창당한다면 수십 명이 더 탈당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의 전현직 위원장들도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8월 말쯤 구체적인 (신당)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과 비전이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분야별 인재를 추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밖에서 신당의 원심력이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현역 의원이 신당에 합류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박 전 지사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의원은 “신당의 동력은 충분하다”며 “여러 갈래의 신당론이 결국 한 흐름으로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혁신안이 잘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구상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주류의 조경태 의원 역시 “호남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요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혁신위의 개혁 만으로는 신당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종걸 원내대표 및 호남 의원단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고, 실제로 일부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문 대표 체제가 계속되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류 측 일각에선 신당론이 예상외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선주자급이나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합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새정치연합을 반대하는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 개막행사’에서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여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데드라인’ 넘겼다

〈제출 시한 8월 13일〉

정개특위 간사 회동…권역별비례제 등 입장차 합의 불발
與 “모든 경우의 수 논의”…野 “획정 지장없도록 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획정 기준 제출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더 해법을 찾아갈지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제시해 달라는 기일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서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개특위가 명확한 획정 기준안을 제시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획정 기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점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지난달과 이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확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특정 계파의 공천 전횡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협상 진척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10월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장병완,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내년 본격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2일 “난항을 겪던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사업’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송암산단 일대 4만9587㎡부지에 총사업비 1013억원이 투입돼 홀로그램, 모션캡처, 증강 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창조콘텐츠제작 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콘텐츠 플라자 건립에 각각 480억원과 310억원이 투입되며 야외제작 스튜디오와 첨단 실감 콘텐츠 체험 사업에도 2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에는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송암산단의 첨단 영상산업과 대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농협중앙회 회장 회원조합 총회서 뽑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선거 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장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나 이는 협동조합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조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1표,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3표)이 삭제돼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박기춘 방탄국회 없다”

오늘 본회의 체포안 처리 가능성…與와 일정 협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은 국회에 보고된 지난 11일부터 72시간 이내인 14일이지만, 14일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유 대변인은 ‘방탄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동의한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자유투표를 할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자유투표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청래 재심사’ 요구 기각

새정치 윤리심판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공갈막말’ 논란을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내린 징계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의 징계는 일단 ‘6개월 당직 자격정지’가 그대로 유지됐다.

윤리심판원은 또한 ‘세작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로 끝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